

외국인 ‘셀 반도체’에 휘청… 코스피 낙폭 키운 쏠림의 덫

外人 3분기·하이닉스 180조 순매도
전체 매도액 88% 두 종목에 집중
AI투자 불신에 반도체 쏠림 위험 부각
34조대 빚투 잔액도 하락 부담 가중
월가선 韓 AI 반도체 성장성 낙관
코스피 9000선 회복 가능성도 제기

코스피가 7거래일 연속 하락했다. 중국 최대 반도체 기업인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의 상장과 인공지능(AI) 인프라 투자 자금조달 병목 우려, 중동발 지정학 갈등 고조에 따른 유가 급등, 이로 인한 금리 급등에 글로벌 증시가 흔들리고 있지만 유독 한국 증시가 더 흔들리는 모양새다.

시장에서는 상반기 코스피의 상승세가 워낙 가팔랐던 만큼 차익실현 매물도 많이 출회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단순한 상승분 반납만으로는 유독 가파른 낙폭을 설명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글로벌 AI 투자 우려로 반도체주가 중심인 한국 증시가 큰 부담을 받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 이탈로 인한 수급 충격까지 더해지면서 하락폭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AI·유가·금리 겹악재

시장은 AI와 한국 반도체 대한 ‘무너진 신뢰’에서 답을 찾는다. 외국인 매도도 ‘셀 반도체’로 볼 수 있다. 올해 들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종목에서 각각 89조1734억원, 91조3862억원어치 팔았다. 두 종목 순매도액이 외국인 전체 순매도(약 208조원)의 87%에 달한다. 두 종목 모두 4월 한 달 순매수를 기록한 뒤 5월부터 6개월 연속 순매도가 이어지고 있다.

한국 반도체에 대한 절대적 믿음이 약해졌다는 게 시장 평가다. 블룸버그통신은 최근 AI 관련 유망 투자처로 대만 증시



ChatGPT로 생성한 이미지. 글로벌 인공지능(AI) 투자 우려와 유가·금리 상승 여파로 국내 증시가 연일 하락하는 가운데, 반도체주 쏠림과 외국인 매도세가 코스피 낙폭을 키우고 있다.

를 꼽았다. 한국 코스피는 매력에 떨어진다고 봤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외에 마땅한 AI 수혜 기업이 없는 데다 이마저도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사태 등 정책 실패로 투자자들의 신뢰를 잃었다는 지적이다. 블룸버그는 “대만 증시는 반도체 설계·제조·패키징·네트워크·서버 등 AI 산업 전반에 대한 투자 기회를 제공하는 반면 한국 증시의 상승세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에 크게 집중돼 있다”며 “메모리 반도체 상승 사이클에 의구심이 커질 경우 한국 증시는 상대적으로 더 취약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AI투자에 대한 우려도 시장을 흔들고 있다. 시장조사기관 가트너는 2026년 약 1조달러에 이어 2027~2030년 추가로 6조달러 규모의 AI 인프라 투자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면서 이에 따른 투자비용과 금융비용, 12%의 투자자본수익률을 달성하려면 2030년까지 8조5000억달

리의 매출이 필요하나 실제 데이터센터 관련 매출은 최대 3조6000억달러에 그칠 것으로 추산했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한국뿐만 아니라 한동안 신고가 영역에 있었던 미국 나스닥, AI주들을 둘러싼 분위기도 부정적으로 변해가고 있는 모습”이라며 “결국 AI 투자 사이클에 대한 시장의 평가 기준이 설비투자(CAPEX) 확대 규모에서 투자자본의 수익성과 자금조달의 안정성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물가(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도 발목을 잡고 있다. 중동 지역의 긴장이 고조되면서 국제 유가는 배럴당 100달러를 넘나들고 있다. 14일(현지시간) ICE 선물거래소에서 12월 인도분 브렌트유는 전장보다 0.35% 오른 배럴당 106.06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유가 상승이 물기를 끌어올리는 ‘오일플레이션’(Oil+inflation)이 심각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미국에서는 금리 인상 압박이 재점화했

다. 9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전년 동월 대비 3.7% 상승한 탓이다. 시카고 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연방기금금리(FFR) 선물시장은 10월 금리인상 확률을 전월 22.1%에서 51.5%로 대폭 상향 반영했다.

한국도 인플레이션에서 자유롭지 않다. 반도체 호황으로 경제 규모가 이례적으로 커지고 소득이 늘면서 소비 증가에 따른 물가 상승 압력이 높아지고 있다. 주요 기관은 유가 전망치를 올려 잡고 있다. 골드만삭스는 12월 브렌트유 가격 전망치를 배럴당 85달러에서 90달러로 상향했다.

◆불안한 시장, IB ‘상승 여력 충분’

“(한국 증시는)세계에서 가장 뜨거운 시장이 오징어 게임이 될 위험에 처했다. 파티가 끝나면 손실은 대부분 현지 개인 투자자에게 남을 수 있다.”(월스트리트저널 7월 6일)

한국 증시가 오징어 게임의 나라으로

떨어질까. 걸 모습만 보면 불안한 장세가 펼쳐질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12월 말 3478조원이었던 코스피 시가총액은 이날 4580조원으로 1100조원 가량 늘었다. 이 가운데 삼성전자(518조원)와 SK하이닉스(448조원)의 증가분이 966조원(88%)에 달한다. AI 열풍 등으로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 올 것이라 기대에 전체 코스피 시가총액 증가분의 88%를 두 종목이 차지할 정도로 쏠림이 심했던 것이다. 특히 개인투자자의 ‘빚투(빚내서 투자)’가 반도체에 몰리며 쏠림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 지수가 급락할 경우 반대매매를 통해 매물이 한꺼번에 출회될 가능성이 있다. 이달 들어 하루평균 반대매매 규모는 234억원에 달했다.

‘빚투(빚내서 투자)’ 규모 자체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국내 신용거래용자 잔액은 지난 14일 33조7057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6월 24일 기록한 사상 최고치 38조6328억원과 비교하면 약 87% 수준까지 올라온 셈이다.

시장에서는 지난해 격조가 탄 평가가 많다.

월가 대표 기술주 분석가인 댄 아이브스는 지난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열린 ‘요코빌 아이브스’ 기자회견에서 “한국은 1990년대 중반 미국 실리콘밸리를 떠올리게 한다”면서 “글로벌 AI 투자는 아직 초기 단계이고, 메모리 반도체는 AI 사업의 심장 같은 존재다”고 했다. 이어 “현재 투자자들은 AI 시대에 한국 기업들의 역할을 과소평가하고 있다”면서 “코스피는 향후 6~12개월 안에 전 고점인 9000 수준을 회복할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했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metro

가계대출 2.2조 감소… 연말 반등 ‘경계’

9월 전 금융권 9개월 만에 순감
은행 주담대 증가폭 2.9조로 축소
기타·2금융권 동반 감소세 확대

지난달 전(全) 금융권 가계대출이 2조2000억원 감소하며 지난해 12월 이후 9개월 만에 처음으로 순감했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증가폭이 축소된 데다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 감소폭이 확대된 영향이다.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증가세가 둔화했지만 연말 대출 쏠림 가능성에 대비해 총량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15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2026년 9월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전월 대비 2조2000억원 감소했다. 지난해 12월 1조2000억원 감소한 이후 첫 순감이다.

가계대출 증가폭은 지난 3월 3조5000억원에서 4월 3조5000억원, 5월 9조3000억원, 6월 8조3000억원으로 확대됐다가 7월 6조4000억원, 8월 2조8000억원으로 둔화한 뒤 지난달 감소세로 전환했다.

◆은행권 주담대 증가세 둔화

업권별로 보면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은 1198조9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6000억원 증가했다. 다만 증가폭은 전월(3조5000억원)보다 2조9000억원 축소됐다.

주택담보대출은 2조9000억원 증가해

전월(4조1000억원)보다 증가폭이 축소됐다. 전세거래가 지속적으로 둔화되고 입주물량이 감소한 영향이다. 실제로 전국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지난 7월 4만2000호에서 8월 3만4000호로 줄었다. 수도권도 같은 기간 2만2000호에서 1만7000호로 감소했다.

기타대출은 2조3000억원 감소해 전월(-6000억원)보다 감소폭이 확대됐다. 개인의 주식투자 감소와 분기 말 부실채권 매상각, 명절 상여금 유입 등 계절적 요인이 맞물리면서 기타대출 감소폭이 커진 것으로 분석된다.

◆2금융권도 감소세 확대

제2금융권 가계대출은 2조8000억원 감소해 전월(-7000억원)보다 감소폭이 확대됐다. 상호금융권은 1조9000억원 증가해 전월보다 증가폭이 축소됐으며, 저축은행은 4000억원, 여신전문금융회사는 9000억원 각각 감소했다.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감소 배경으로 정부의 대출 규제와 주택시장 거래 둔화 등을 꼽았다.

이날 열린 가계부채 점검회의에서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9월 가계대출 순감은 주택담보대출 증가세 둔화와 기타대출 감소폭 확대 등에 따른 것”이라며 “이는 주택거래량과 입주물량 감소 등 주택시장

영향과 분기말 부실채권 매상각, 명절 상여금 등 계절적 요인에 기인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총량관리 목표를 상향 조정하고 있는 일부 금융회사의 대출 취급 상황에 우려를 나타냈다.

신 사무처장은 “최근 가계대출 총량관리 목표를 상향 조정하고 집단대출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 만큼 연말 대출 쏠림 우려는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하반기 리스크 요인이 상존하는 만큼 남은 기간에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가계부채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지난 8·13 대책 후속조치인 보증자리론 철거명실 특례 해소와 무주택 청년 전세대출보증 지원 강화 방안을 오는 19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신속 입주단지에 대한 집단대출 취급 현황도 점검한다. 분양 당시 예상했던 자금조달계획에 따라 실수요자가 차질없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금융회사의 대출 취급 상황을 점검하고, 개별 분양사업장에서 자금 애로가 발생하면 금융권과 함께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나유리 기자 yul115@

metro

현대제철, 사내하청 임금·고용안정 교섭 이견

≫ 1면 ‘임단협 등 진통…’서 계속

하청교섭은 원청 사용자성 및 교섭단위 분리에 관한 노동위원회의 판단에 시추가 불복하면서 법적 분쟁에 들어갔다. 법원은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해 중노위의 교섭단위 분리 재심결정 효력을 정지했다. 첫 변론은 12월 3일 예정이며, 사용자성과 교섭단위 분리의 적법성은 본안에서 다툰다.

정규직 임단협을 마무리한 현대제철도 하청교섭에서는 이견이 남아 있다. 현대제철은 지난 8월 정규직 임단협에 이어 9

월 현대ITC·현대IEC·현대IMC·현대ISC 등 4개 자회사 노조와 산업안전 분야 원·하청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개정 노조법 시행 이후 첫 원·하청 교섭 타결 사례다.

그러나 별도 사내하청 조직인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와의 교섭은 진전이 없다. 지난 7월 실무회의에서 노조는 임금·성과급·고용안정·복지·정규직 전환을 요구했으나 사측은 산업안전 외 의제는 교섭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양측은 이견을 좁히지 못해 상견례조차 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혜은 기자 dhalehdale@

실거주 의무 유예신청 한 달 새 62건 ↑

≫ 1면 ‘서울 아파트 토허신청…’서 계속

다만 토허 신청가격 변동률은 해당 월 자치구가 제출한 신청 자료를 바탕으로 산출한 것으로, 신청 건수나 가격 변동만으로 주택시장 전반의 회복세를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시는 9월 신청 증가에 정부 세제개편안의 종합부동산세 부담 완화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제시했지만, 국회 심의와 대출 여건 등을 함께 살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세입자가 있는 주택의 실거주 의무 유

예 신청은 9월 198건으로, 전체 토허 신청의 5.4%였다. 8월 136건보다 62건 늘었고 비중도 0.8%포인트 높아졌다. 권역별로는 한강벨트 69건, 강북권 68건, 강남3구·용산구 40건, 서남권 21건이었다. 6~9월 누적 유예 신청은 812건으로 같은 기간 전체 신청 1만6536건의 4.9%다.

지난해 10월 20일부터 올해 9월 말까지 서울 아파트 토허 신청은 누적 5만9619건이었다. 이 가운데 5만8170건(97.6%)이 처리됐다. 9월에는 3678건이 신청되고 3526건이 처리됐다.

/이현진 기자 lhj@